



CAREER DOCT+OR

부기톤 코드 리뷰

안녕하세요!

2024 부기톤에서 진행했던 [CAREER DOCTOR] 프로젝트 프론트엔드의 코드 리뷰 시간입니다.

각자 파트 분배 및 깃허브 진행 방법



박태범

메인페이지, 취준밸런스



최지훈

스펙진단받기, 스펙소견서



박시현

로그인&회원가입, 마이페이지

- 각자 맡은 파트의 코드는 개인 브랜치에 올리고, 주기적으로 메인 브랜치와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

```
import check from "../../img/check.gif";

function VoteRegister() {
  const navigate = useNavigate();
  const moveMyPage = () => navigate("/mypage");
  const moveOther = () => navigate("/balanceMain");
  const gifSrc = `${check}?${new Date().getTime()}`; // 캐시 우회
```



IMG태그에 GIF를 그냥 넣으면 GIF가 움직이지않고 사진 처럼 로딩이 다 된 이미지가 뜨게 됨.

이는 브라우저가 GIF를 캐싱하기 때문에 정적으로 보이게된다.

해결방법: 캐시 우회

위와 같이 자원의 URL에 문자열을 추가하여 브라우저가 항상 GIF를 새로운 버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.

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매번 새로운 URL로 인식하여 캐시를 무시하고 새로운 자원을 다운로드하게 되면서 GIF가 잘 보이게 된다.

세션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무엇을 넣었는지?

박태범

새로운 기능이 없습니다.

최지훈

저는 세션 때 배우지 않았던 기능을 새롭게 넣은 부분은 없었습니다.

박시현

세션 때 배우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, API 호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비동기 통신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. axios의 활용 덕분에 데이터 요청과 응답 처리가 훨씬 원활해졌습니다.

가장 힘들었던 기능은 무엇이었고, 어떻게 극복했는지

박태범

힘들었던 기능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처음이라 처음 시작할때 구조는 어떻게 해야될지 css 를 어떻게 짜야 할지 등 모든 것에 대해 막막함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운영진들에게 하나 하나 물어보고 구글링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극복할수있었습니다.

최지훈

css 부분에서 화면 구성하는 파트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파트를 맡았던 분에게도 물어봐서 해결하기도 하고, 친구한테 물어보고 밤을 새면서 화면을 구성해보면서 극복하였습니다.

박시현

마이페이지에서 버튼 클릭 시 아래에 표시되는 항목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이었습니다.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React의 상태 관리(useState)와 useEffect 혹은 활용해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,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동기화했습니다. 이로써 사용자 경험을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기능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.

부기톤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향상되었는지(통신, **css** 등등)

박태범

CSS 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.
CSS 는 확실히 이론보다는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

최지훈

페이지가 많았어서 CSS 부분에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. 정확히 CSS 부분에서 각 component 들끼리의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향상되었습니다.

박시현

부기톤을 통해 통신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. 백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프론트에 API 호출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져오고 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, 데이터 흐름과 처리가 더 익숙해졌습니다.



Made with Gamma